

05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그럼 우리가 수박을 심자”



“그럼 우리가 수박을 심자”

유아의 놀이는 간식 시간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맛있는 수박을 더 먹고 싶은 유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상생활에서 시작한 유아의 상상과 탐구는 어떠한 놀이가 되었을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수박(씨)을 심고 싶다는 유아의 요구에 따라 화분을 제공하고,
수박씨를 심고 싹이 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4, 5세(혼합 연령반) 유아	2019년 5~6월, 오후 간식 및 놀이 시간	교실

오후 간식으로 수박, 토마토와 우유가 나온다. 한 유아가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더 먹고 싶어 하지만 수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수박을 먹고 싶은 바람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연: 아! 수박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채미: 맞아 나도 수박이 제일 좋은데...
 수연: 그럼 우리가 수박을 심자.
 채미: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수연: 맞아! 수박을 심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몇 명의 유아가 수박씨를 모으기 시작한다.

수연: 우리 수박씨 모으자.
 채미: 근데 노란 씨는 빼야 되나?
 수연: 노란 씨는 검은색 껍질이 벗겨진 거라 심으면 안 돼.
 채미: 맞아! 노란 씨는 엄마가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했어.
 수연: 선생님! 여기 봐요. 수박씨가 노란색 반,
 검은색 반이 있어요.
 이거는 검은색이었다가 껍질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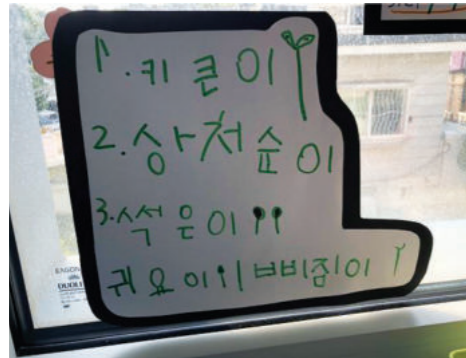


유아는 수박을 더 먹기 위해 수박을 심자고 제안 하였다. 교사에게 수박 씨앗을 심을 흙과 화분을 요청한다. 유아가 집으로 돌아간 후, 교사는 유아가 요청한 화분, 흙, 꽃삽 등을 준비해 둔다. 다음 날 교사와 유아는 전날 모아 두었던 수박씨를 심으며, 수박 씨앗 수와 열리게 될 수박의 수에 대해 가설을 세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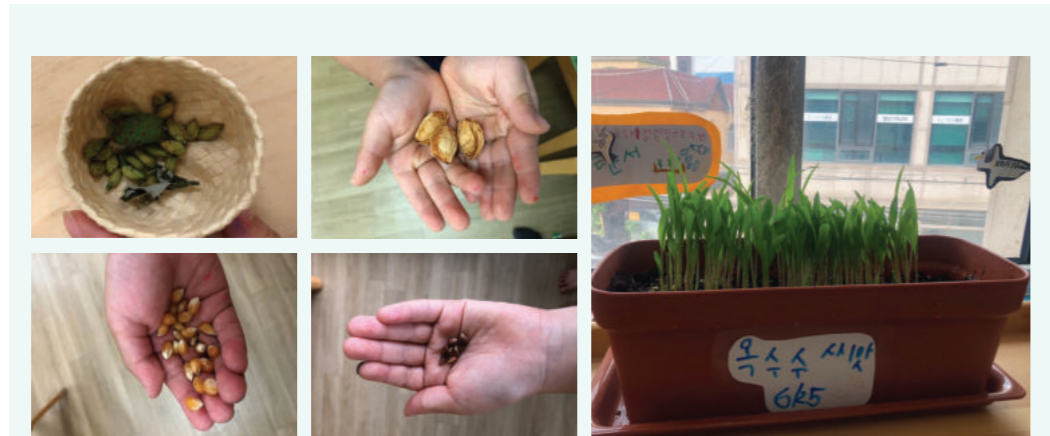
수연: 우리 수박 열리면 하나씩 가져가도 돼요?
 교사: 수박을 가져가고 싶구나. 근데 몇 개가 열릴까?
 수연: 지금 씨앗이 음...
 15개니까 15개 열리겠죠.
 교사: 씨앗 하나에 수박 하나씩 열릴 것 같니?
 채미: 당연하죠.
 수연: 맞아요! 이 씨앗이 수박이 되는 거니까요.



유아는 수박씨에서 나올 싹을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물을 준다. 며칠 뒤, 씨앗 수대로 싹이 15개 나온다. 유아는 수박의 싹을 관찰하며 모양이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싹에 이름을 지어 준다.



은: 애가 제일 작다. 막내야 막내. 너무 귀여워.
 주은: 은아, 우리 애 귀요미라고 부를까?
 은: 그래, 우리 귀요미!
 채미: 그럼 여기 키 큰 애는 키 큰이라고 부르자.
 주형: 맞아 키 큰이! 애가 일등인 것 같아.
 채미: 그런데 애는 상처가 너무 많아. 곧 죽을지도 몰라.
 음... 애는 상처순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주형: 어! 누나 그럼 애는 이름이 뭐야?
 채미: 애는 옆으로 획! 하고 있으니까 '삐짐이' 어때?
 주형: 삐짐이가 뭐야?
 채미: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아니 그게 삐져 고개를 획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5세 유아의 수박씨 사랑은 4세 동생들에게도 번져 나간다. 씨가 나오는 것을 본 동생들도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 어느새 교실 안에서 보리 씨앗, 가지 씨앗, 옥수수 씨앗, 땅콩 씨앗 등 유아가 집에서 가져오거나 산책 길에서 주운 씨앗으로 씨를 틔우는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는 간식 시간에 좋아하는 수박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바람에서 출발하여 씨앗을 심어서 싹을 내기 위해 수박씨 심기에 도전하였다. 수박을 키워서 하나씩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공통의 목표**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씨앗들의 모양과 특징을 비교하였다. 한 개의 씨앗에서 한 개의 수박이 열릴 것이라는 가설도 세웠다. 유아는 자신이 심은 씨에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서 수박 싹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기뻐**하였고, 수박 씨앗 15개가 모두 싹으로 나오자 **환호**하기도 하였다. 또 싹이 자라는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수박 싹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싹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귀요미', 키가 제일 큰 '키 큰이', 상처가 많아서 '상처순이', 혼자 다른 방향으로 나서 '삐짐이' 등 싹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이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간식시간에 제공된 수박을 계기로 수박을 더 먹고 싶다는 **즉흥적** 바람에서 시작된 수박 심기는 **자발적**으로 수박씨를 모으고, 직접 씨앗을 심고, 싹을 키우고, 특징을 관찰하고, 이름을 지어 주고, 나아가 다른 씨앗에 관심을 넓히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유**되며 **지속**되었다.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수박과 수박씨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싹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담긴 놀이는 유아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었고, 유아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물론 애써 키운 싹에서 수박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박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목표 달성 여부를 넘어서 수박 싹을 키우는 과정에서 싹에 대한 **상상, 실험, 공유**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연령의 유아에게도 퍼져 나갔고 다른 씨앗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 역시 먹던 씨에서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수박의 싹이 수박 잎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래서 유아가 신기해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다.

교사 이야기: 유아와 함께 배우는 교사

씨앗 심기 활동은 매년 4월 봄 주제에서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 중 하나였다. 유아에게 식물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와 결과물(열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은 교사의 몫이었고 그 사이 씨앗과 식물의 성장에 대한 유아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져 갔다.

사실 교사로서 유아들이 간식으로 먹고 남은 수박씨를 심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유아에게는 수박을 집에 가져가겠다는 진지한 목표가 있었다. 유아들의 생각과 행동은 계획적이었고, 어느새 교사인 나도 유아의 그 계획에 함께하고 있었다.

며칠 지나고 하나씩 싹이 올라올 때마다 신기했고, 싹이 잘 자라 작은 수박 열매라도 맺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점점 싹이 크게 자라면서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 무렵, 갑자기 수박씨를 심은 화분에서 더 많은 싹들이 나고 있었다. “분명 우리가 심은 씨앗은 15개인데... 이 많은 싹들은 무엇일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아들이 교사 몰래 또 다른 씨앗을 모아 그 씨앗들을 수박 싹이 나지 않는 빈 공간에 심었던 것이다. 결국 너무 많은 싹이 자란 화분의 수박 싹은 작은 열매도 맺기 전에 모두 시들어 버렸다. 비록 씨앗에서 싹이 난 뒤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는 등의 결과물은 얻어 내지 못했지만 교사와 유아 모두 씨앗을 심고, 싹을 기다리고, 키우는 과정들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다.

현재 우리 반 교실에서는 옥수수 싹, 가지 싹, 보리 싹이 자라고 있다. 처음 수박씨를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싹들을 키우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씨앗에 대한 유아의 애정은 계속 다른 씨앗으로 전파되었고, 또한 4세 유아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놀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유아들이 원했던 수박을 얻게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애들아, 우리 이번에는 더 넓은 텃밭에 가서 키워 볼까? 그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려 보자.”



교사 지원의 특징

유아 일상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흥미에 즉각적으로 지원하였다. 또 유아의 생각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유아의 가설을 따라갔다.

